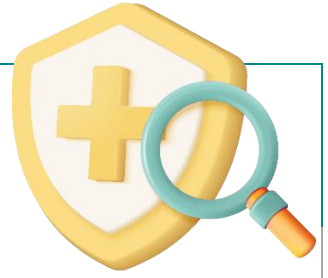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9월 중간)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9월 18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하반기 주요 학회 시작, 그리고 실적에 집중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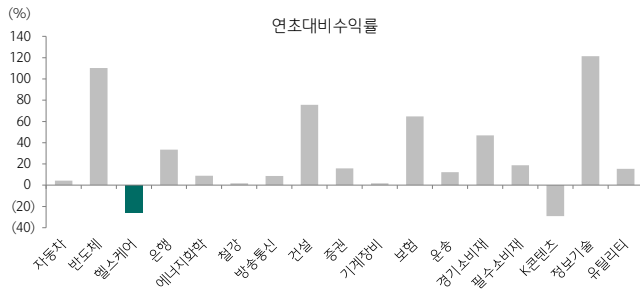
1) 2026년 9월 제약/바이오 산업 중간점검

- **World-ADC, ESMO 등 10월 주요 학회** 바이오텍의 하반기 주요 실적 발표로도 볼 수 있는 학회 시즌이 도래하였다. WCLC(세계폐암학회)가 9/15일자로 종료되었고, 주목할 이벤트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ESMO(유럽종양학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Late-Breaking Abstract 관련하여 개최지인 마드리드 현지 시간 기준으로 9/16~18 사이 각 주요 저자 또는 제출 기업에 최종 수령 통지가 있을 예정이고, 채택된 기업은 곧 공지나 참석 관련 기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 데이터 발표가 없었던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참석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종목으로는 알지노믹스(교모세포종), 온코넥테라퓨틱스(췌장암 P1b full data, 또는 난소암 등 추가 고형암 P2 중간 결과), 지아이이노베이션(GI-102 SC, 102+키트루다 병용 등) 등이 있다 (참석이 기사 등으로 확인된 기업은 [도표. 17]을 참고). 이번 ESMO에 Merck/Moderna와 BioNTech/Roche의 항암백신 데이터 발표가 있다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종목들을 함께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9/1일자 Biweekly 참고). 이후에도 11월 AASLD(미국간학회), Obesity Week(비만학회), 12월 AES(미국뇌전중학회), ASH(미국혈액학회)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2개월 전부터 참석 예정인 기업이 주목 받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일정을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실적은 믿음직한 재료** 9월 FOMC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의 25bp 인상하기로 했고, 인상 사이클로 본다면 4Q까지 금리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9/17일자 박준우 위원의 "[9월 FOMC] 일회성 조정이 아닌 인상 '사이클' 리포트 참고). 최근 알테오젠이 Novartis항 약 \$3.2B 규모의 계약을 하였으나, 주요 후보군인 Del-desiran 임상3상 실패와 함께 시장이 철저히 현금 유입 시점을 추정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비만치료제 HM17321을 Genentech에 \$2.3B 규모, 선금금 약 2,600억원을 수령하는 기술이전 계약 후 셀온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가 결국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 것처럼, 전망이 불안정할수록 실적은 믿음직한 재료가 된다. 곧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달러 약세에 의한 컨센서스 변동이 클 예정이니 점검이 필요하고, 4분기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다면 실현 가능성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4분기는 글로벌 동향으로 L/O가 가장 많은 때이나 지금은 기대감 만으로 주가가 버티기는 힘들어 보인다.

2) 2026년 9월 추천 종목 중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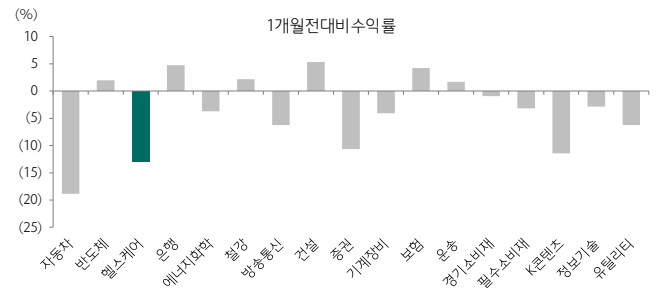
- **9월 코스피 Top pick(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유상증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29년 내 빠르게 발표될 CAPEX의 확대 공시의 예고편이라 판단되어, 단기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천한다. 2) 한미약품은 L/O로 인한 선금금 유입은 물론이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판매 허가도 가까워졌다. 또한 3분기에 중국에서 코로나 양성 진단을 20%를 돌파하여 북경한미도 QoQ로는 분명한 실적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Top pick인 SK바이오팜은 FDA의 우려를 해소하고 부분 임상 중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이 주가 회복에 중요하다(11월 추정).
- **9월 코스닥 Top pick(변경): 알테오젠, 올릭스** 1) 알테오젠은 서프라이즈한 3Q26 실적을 보여줄 예정이다. Qlex는 8월에도 Integrated WAC 기준 지난 달 대비 약2% 더 성장했다. 올해 총 sales milestone과 4Q까지 기존 파트너사들의 개발 진행에 따른 마일스톤 등을 고려하면 '26년 영업이익은 3천억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2) 올릭스도 9/15일 약 160만주의 CPS 전환물량이 상장했음에도 견조한 주가를 보이고 있다. 오버행 이슈를 상쇄할 여러 이벤트가 있지만, 탈모 치료제는 2a상에서 국가 및 환자 수 확장한 만큼 1b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이 보이고 4분기 내 공개할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기존 Top pick인 리가캠바이오는 서브라이선스로 하반기 내 추가 L/O 가능성 높은 분위기이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유지하나, 최근 주가 동향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배제하였다.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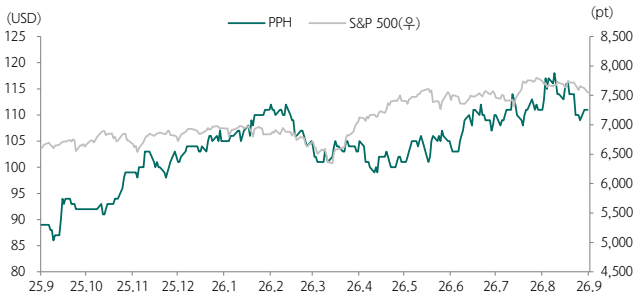
주: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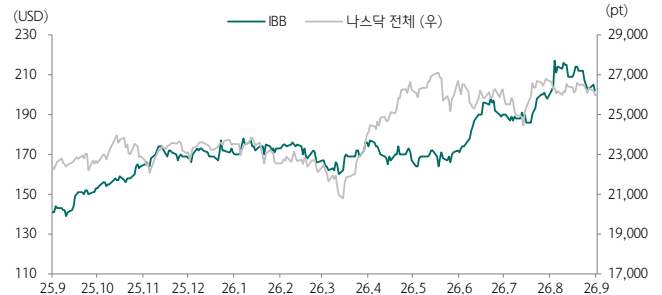
주: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3.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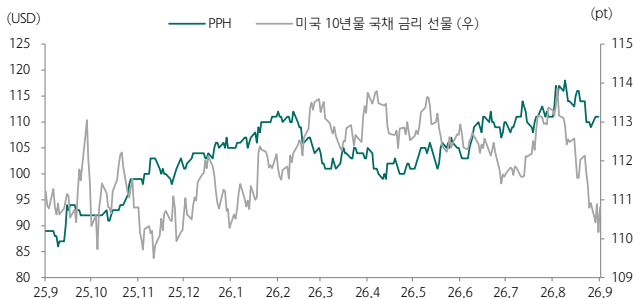
주: 9/17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18.96%), MSD(10.90%), Novartis(9.30%), Pfizer(5.10%),
 BMS(4.89%), McKesson(4.86%), AbbVie(4.73%), Novo Nordisk(4.71%), J&J(4.53%),
 CSK(4.1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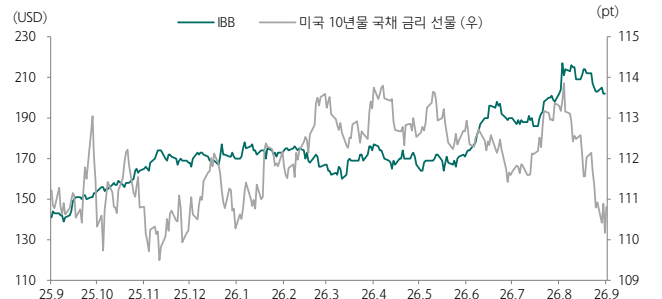
주: 9/17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Vertex Pharmaceuticals(7.97%), Amgen(7.73%), Gilead(7.54%),
 Regeneron(5.80%), Moderna(3.88%), Argenx(3.78%), Natera(3.56%), Revolution
 Medicines(2.90%), Illumina(2.49%), Biogen(2.35%)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PPH



주: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6.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I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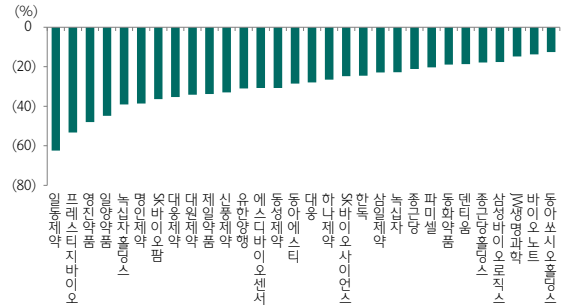
주: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7.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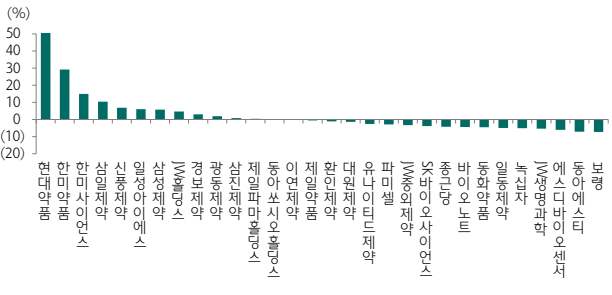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8.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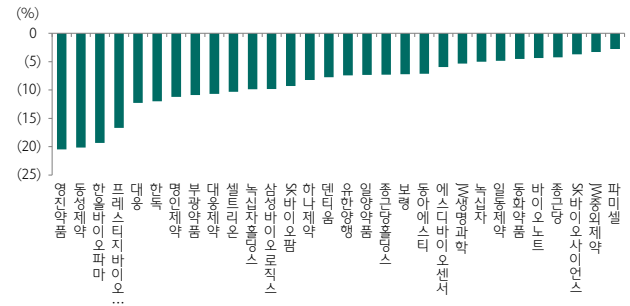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9.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0.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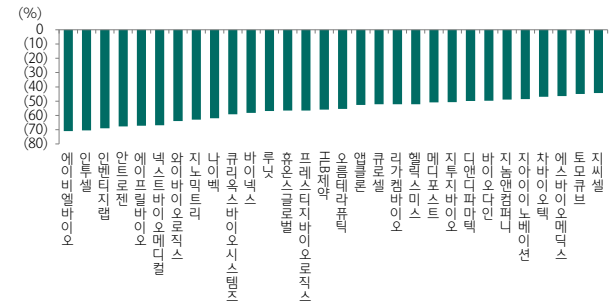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1.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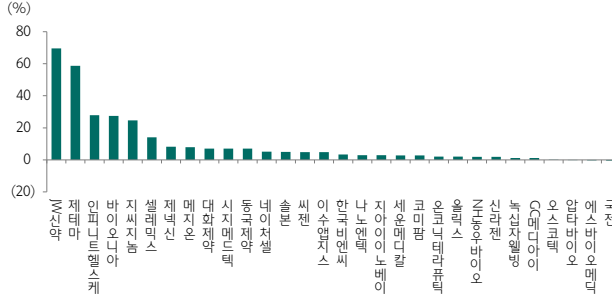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2.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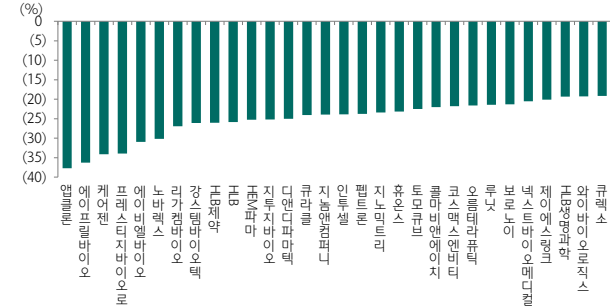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3.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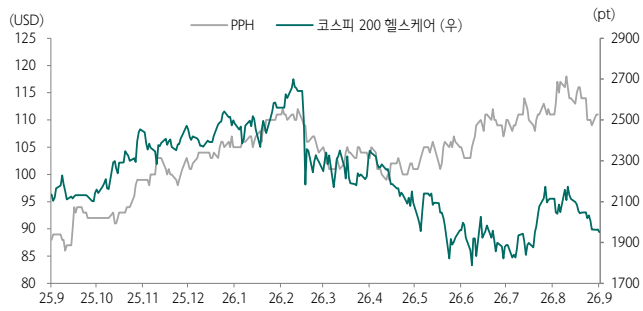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4.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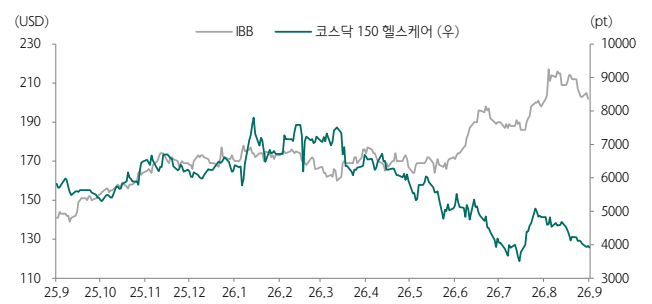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9/17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5. 미국 제약사 ETF(PPH)와 코스피200헬스케어 비교



주: 9/17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18.96%), MSD(10.90%), Novartis(9.30%), Pfizer(5.10%),
 BMS(4.89%), McKesson(4.86%), AbbVie(4.73%), Novo Nordisk(4.71%), J&J(4.53%),
 GSK(4.1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6. 미국 바이오텍 ETF(IBB)와 코스닥150헬스케어 비교



주: 9/17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Vertex Pharmaceuticals(7.97%), Amgen(7.73%),
 Gilead(7.54%), Regeneron(5.80%), Moderna(3.88%), Argenx(3.78%), Natera(3.56%),
 Revolution Medicines(2.90%), Illumina(2.49%), Biogen(2.35%)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지난 2주 간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 기준일 9/1 이후)

[9/1] Lilly,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사 Merida Biosciences 인수 (최대 \$2.875B 규모)

- Merida는 병원성 자가항체를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기술 보유. 핵심 파이프라인인 MER511은 항체 Fc의 FcγRIIB를 매개로 자가항체를 선택적으로 분해하고, 추가로 병원성 자가항체를 만드는 B세포를 저해. 새로운 분해기전의 Modality로, 그레이브스병, 갑상선안병증(TED) 대상 초기 1상 데이터로 긍정적인 내약성 및 효과 확인. 그레이브스병에서는 자가항체 70% 수준으로 감소, TED 적응증에서 50~70% 수준으로 감소
- 선급금과 조건부 마일스톤을 합하여 최대 규모 \$2.875B 수준이나, 구체적인 선급금을 공개하지 않음

[9/2] Roche, Simcere의 CD79a×CD19×CD3 삼중항체 기술 도입 (최대 \$1.53B 규모)

- SIM0660의 글로벌 독점권 확보, 선급금 \$75M 및 약 \$1.46B 마일스톤을 포함하여 총 최대 \$1.53B 규모. 순매출에 대해서 최대 두 자릿수 비율의 단계별 로열티 별도 수령
- SIM0660은 CD79a x CD19 x CD3 삼중특이적항체로 'CD3'에 결합하는 부위와 B세포 표면 항원인 'CD79a', 'CD19'에 각각 결합하는 2개의 도메인을 결합한 구조를 가짐. CD3는 T세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므로, 사이토카인 방출은 억제하면서 강력한 T세포 매개 세포독성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 'CD20' 또는 'CD19' 표적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도 의미할 것으로 기대

[9/2] 알테오젠, Novartis에 ALT-B4 기술수출 계약 (최대 약 \$3.2B 규모)

- 계약금 등의 세부 조건은 비공개이나, Novartis는 복수 제품에 대해 ALT-B4를 활용하여 SC형용을 개발, 상업화 할 것
- 복수의 제품은 바이오의약품이고 옵션 형태로 행사될 예정이며, 옵션 행사금도 마일스톤에 포함되어 있음. Novartis의 주요 파이프라인 중 Avidity에서 인수한 AOC가 있고, Del-desiran이 임상3상을 종료하고 데이터 분석 중이었으므로 상업화가 가장 가까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el-desiran 임상3상 결과가 실망스러움에 따라 추가 하락

[9/3] GSK, Hutchmed(CN)로부터 EGFR 항체x KRAS 저해제 접합체 도입 (최대 \$1.295B 규모)

- 해당 파이프라인은 HMPL-A830으로, EGFR 항체에 KRAS 저해제를 결합하여 종양을 타겟하면서 EGFR과 KRAS를 동시 억제할 수 있음. 항체가 표적성만 갖는 ADC와는 다른 Antibody-Targeted Therapy Conjugate(ATTC)임. 중국 외 권리에 대해 선급금 \$110M + 최대 마일스톤 \$1.185B로 총 \$1.295B 규모
- Hutchmed는 2H26 시작 예정인 글로벌 1상 수행하고, GSK는 1상 이후 중화권 외 지역의 임상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함. 첫 1상은 다양한 암환자에 대해 1/2a로 147명 등록 계획

[9/3] Pfizer, Seagen을 인수하며 확보한 CD228 ADC를 Medicus에 L/O (\$1B 이상 규모)

- 매각한 파이프라인은 CD288을 표적으로 하는 신약 PF-08046031로, 선급금 \$12M 지불하고, 1년 뒤 \$15M 추가 지급함, 그리고 이후 개발 단계에 따라 추가 마일스톤 지급. Pfizer는 동시에 초기 개발 착수를 지원하기 위해 \$2M 편당하고, 대신 순 매출에 따른 낮은 두 자릿수 비율의 로열티 수령할 것. Pfizer가 특허권도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Medicus의 지배권 변경, 서브라이선스 등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가를 일부 수령하게 됨
- PF-08046031은 초기 개발 단계 ADC로 작년 5월 임상1상 개시하여 진행성 흑색종, 폐암, 두경부암, 식도암 등 고형암에 대해 탐색 중. Pfizer가 Seagen 인수를 통해 확보했던 자산으로, 2023년 대형 인수 이후 후보물질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음

[9월] Novartis, 신약 임상의 잇따른 실패 자가면역 CAR-T rap-cel, pelacarsen, AOC인 del-desiran 등

- 1) 자가면역 CAR-T rap-cel의 임상 중 환자 사망 사건**
 - 임상 시험 참여한 환자 3명이 중증면역반응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 2상 4건 및 1/2상 4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임상 일시 중단됨. 중단된 것은 자가면역 또는 신경질환 분야 임상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시험은 계속 진행
 - 임상 중단 사유는 '면역효과세포 관련 혈구탐식증후군(immune effector cell-associated hemophagocytic syndrome, IEC-HS)'으로, CAR-T로 치료 후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성화 되면서 고열, 혈구 감소, 간 기능 이상,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이어지는 전신 염증성 합병증
- 2) pelacarsen, Lp(a)HORIZON 3상 실패**
 - 높은 Lp(a) 수치를 갖는 심혈관질환 환자 8,323명 대상 위약 대조 3상인 HORIZON 임상에서 pelacarsen 투약군에서 Lp(a) 수치를 낮추는 것은 성공했으나, 심혈관 사건 지표인 4-point MACE (4가지 주요 심뇌혈관 사건) 감소는 실패
 - pelacarsen의 Lp(a) 수치 감소 작용은 확인되었기 때문에 약물 설계 문제라기 보다, Lp(a)가 심혈관질환의 원인인자라는 'Lp(a) 가설'이 흔들리는 결과로 해석. Lp(a)는 동맥 내 플라크 형성 및 염증 유발 인자로 작용해 혈관 파열, 뇌경색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왔음. 이 가설은 나온지 20여년 되었고, 90% 이상 유전적인 인자로 알려져 있음. 임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Lp(a) 저하와 심혈관 결과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함. 향후 학회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
- 3) del-desiran, HARBOR 3상 실패**
 - DM1(근긴장성 이영양증 1형)환자 159명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으로, DMPK mRNA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손을 펴는 시간을 영상으로 측정하는 vHOT의 위약 대비 개선을 입증하는데 실패
 - del-desiran은 Avidity 인수로 확보한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당시 인수 규모는 \$12B 수준. 인수 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써 del-desiran에 대한 가치 배분은 약 \$0.75B로 산정됨
 - del-desiran은 근육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Tfr1에 결합하는 항체에 DMPK mRNA를 타겟하는 siRNA를 결합한 AOC로 이번 임상 성공시 최초 상용화 AOC가 될 수 있었음. 우선 1차평가변수는 충족하지 못했지만, 전체 2차평가변수와 하위군 데이터를 확인한 후 규제기관과 개발 방향을 협의할 예정
- 4) VHB937의 루게릭병(ALS) 대상 임상2상 실패로 개발 중단**
 - 251명 대상 글로벌 2상으로, 1차 및 2차 평가변수 충족 실패해 공식 중단함. 다만 알츠하이머병 2상은 계속 진행할 것.
 - VHB937은 CNS 내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 표면의 TREM2를 표적하는 항체 후보 물질로서, TREM2 수용체 신호전달을 유도해 독성 단백질과 세포 잔해를 제거하고 신경 염증 반응 조절 메커니즘. 루게릭에서의 TREM2 수용체 타겟 후보물질을 적용하는 것은 모험적인 임상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타겟으로는 가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9/15] GSK, Chimagen(CN)으로부터 추가로 삼중작용 TCE 인수 (최대 \$750M)

- 선금금, 마일스톤 등 구체적인 계약 구조는 비공개. 파이프라인의 구체적인 종양 표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발성골수종 파이프라인 확보 목적임. T세포에 결합하는 동시에 두 개의 종양 연관 항원을 표적하도록 설계. '27년에 임상1상에 진입시킬 계획임
- '24년 CD19xCD20xCD3 TCE인 CMG1A46(GSK5926371)을 \$850M에 인수한 바 있음. 해당 파이프라인은 r/r B-NHL(재발성/불응성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임상1/2상 및 B세포 매개 자가면역 류마티스질환 임상1상을 진행 중임

[9/15] Lilly, QurCan(캐나다)과 CNS 질환 핵산 치료제 개발 협력 계약

- R&D 펀딩 및 프로그램 당 최대 \$237M의 개발,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수령 가능. QurCan은 CNS 및 PNS 질환 치료를 위해 핵산 치료제 전달체 기술인 TERP 플랫폼 보유. TERP 플랫폼은 고분자-지질 나노입자(PLNP)로서 바이러스 전달체와 달리 반복 투여가 가능하고, BBB를 통과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짐

[9/16] Novartis, Sironax(CN)의 BBB 플랫폼 독점권 인수하는 옵션 행사

- 이 계약 건은 기존의 플랫폼평가계약 상 옵션 행사로, Novartis는 '25년 7월 Sironax의 BBB 투과 플랫폼에 대한 전 세계 독점권을 인수하는 옵션이 포함된 자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당시 계약 규모는 선금금 및 단기 마일스톤 등을 포함해 최대 \$175M이었고, 14개월 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 옵션 행사를 결정하며 인수 단계로 전환되었고 옵션 행사금은 \$125M. Sironax는 ALS 및 화학요법 유발 말초신경병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SIR2501 등을 임상1b 내지 2상 단계에서 진행 중. 이번 옵션 행사는 Novartis가 VHB937의 ALS 환자 대상 임상 실패로 인한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후로, Novartis가 CNS 계열 치료제 개발에 의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줌

도표 17. 2026년 주요 학회 일정 (추가 확인 후 Biweekly로 업데이트 됨)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비고
9월	09월 28일	EASD (유럽 당뇨병학회)	62th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nnual Meeting	Milan, Italy	관련기업: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HK이노엔, 대웅제약
10월	10월 12일	World ADC-USA (세계 ADC학회)	World ADC San Diego 2026	San Diego, USA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0월 23일	ESMO (유럽 종양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Madrid, Spain	리가캠바이오, 에임드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Compass), 큐리언트 (관련기업: 한미약품, 지아이 이노베이션, 에스티큐브, 보로노이 등)
11월	11월 04일	SITC (국제면역항암학회)	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Phoenix, AZ	관련기업: 셀트리온, 한미약품, 에이비엘바이오, 지아이 이노베이션, HLB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메드팩토 등
	11월 09일	Bio Europe (바이오 파트너십 유럽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Cologne, Germany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1월 05일	AASLD (미국 간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Denver, CO	관련기업: 디앤디파마텍,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동아ST
	11월 14일	Obesity Week (비만학회)	Obesity Week2026	Washington, DC	디앤디파마텍 (관련기업: 한미약품, 올릭스, 동아ST, 대웅제약 등)
12월	12월 04일	AES (미국 뇌전증학회 연례회의)	American Epilepsy Society 2026	Denver, CO	관련기업: SK바이오팜 (Biohaven)
	12월 08일	SABCS (샌안토니오 유방암 학회)	San Antonio Breast Cancer Symposium	Texas, USA	리가캠바이오(ICSUDA)
	12월 16일	CTAD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Clinical Trials on Alzheimer's Disease	Boston, USA	관련기업: 오스코텍, 에이비엘바이오
	12월 12일	ASH (미국 혈액학회)	ASH 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New Orleans, LA	리가캠바이오(ICSUDA) (관련기업: 오름테라퓨틱, 앵클론, 지씨셀, 네오이문텍 등)

주: "관련기업"은 '25년에 참가했거나 파이프라인 상 관련은 있으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기업
 자료: 하나증권

도표 18.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6.09.17 기준)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3Q25	2Q26	3Q26F	2025	2026F	3Q25	2Q26	3Q26F	2025	2026F
셀트리온	41,941	1,029.0	1,393.7	1,450.1	4,162.5	5,537.1	301.4	451.8	510.4	1,168.5	1,858.3
삼성바이오로직스	64,622	2,234.6	1,320.9	1,337.9	4,557.0	5,495.1	783.7	586.4	604.0	2,069.2	2,416.2
(TP: 2,050,000원)				(F.1,452.2)		(F.5,601.9)			(F.642.8)		(F.2,446.0)
삼성에피소홀딩스	8,274	nr	391.9	480.1	251.7	1,857.7	nr	58.7	63.9	-63.6	246.8
(TP: 620,000원)				(F.488.3)		(F.1,867.0)			(F.74.9)		(F.256.6)
유한양행	5,705	570.0	639.5	605.0	2,186.6	2,347.2	22.0	66.9	29.8	104.4	128.9
녹십자	1,434	609.5	421.2	588.4	1,991.3	1,988.1	29.2	1.7	33.6	69.2	72.6
한미약품	6,598	362.4	467.3	431.9	1,547.5	1,759.7	55.1	131.1	91.5	257.8	366.5
(TP: 660,000원)				(F.407.0)		(F.1,716.5)			(F.38.6)		(F.284.2)
대웅제약	1,290	411.8	448.5	461.3	1,570.9	1,665.7	56.9	68.1	87.1	196.8	231.1
HK이노엔	1,108	260.8	267.2	274.5	1,063.2	1,098.1	25.9	30.0	31.2	110.9	130.7
종근당	903	429.8	478.5	476.9	1,692.4	1,879.9	21.0	18.6	19.1	80.6	77.3
휴온스글로벌	281	211.2	214.1	nr	847.5	nr	20.3	19.5	nr	90.6	nr
동아에스티	348	215.9	224.7	225.9	808.8	845.7	14.0	6.3	10.6	0.6	41.8
보령	730	280.0	279.6	nr	1,017.4	nr	29.4	23.8	nr	65.1	nr
SK바이오팜	6,202	191.7	247.4	253.8	706.7	978.3	70.1	97.1	91.7	203.9	350.7
(TP: 160,000원)	954			(F. 252.0)		(F. 972.7)			(F. 96.3)		(F. 340.1)
동국제약	1,919	226.8	258.9	262.1	926.9	1,050.1	24.8	26.1	27.3	96.6	109.3
에스티팜	1,741	81.9	108.5	99.6	331.7	417.7	14.7	18.3	18.0	54.9	75.3
(TP: 190,000원)	650	138.2	153.3	156.0	536.4	611.0	16.1	19.3	18.0	56.1	70.0
셀트리온제약	457	200.0	222.0	nr	775.3	nr	32.0	33.3	nr	94.5	nr
JW중외제약	176	145.5	147.9	153.7	566.9	597.5	6.8	2.0	8.0	19.5	34.5
일동제약	147	143.9	152.8	144.5	605.4	625.0	-10.4	-0.0	4.3	3.5	17.3
대원제약	205	134.8	146.6	nr	567.2	nr	9.8	-7.0	nr	20.7	nr
제일약품	1,290	45.4	37.8	nr	168.5	170.5	0.2	-9.2	nr	-4.5	-7.1
바이넥스	1,108	226.8	258.9	262.1	926.9	1,050.1	24.8	26.1	27.3	96.6	109.3

주1: 2Q26→3Q26F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주3: 시총 상위 종목 중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은 제외

자료: QuantilWise, FnGuide, 하나증권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추석 전 노사 합의 될까, 원화 강세로 어려워진 3Q 추정

- '26년 가이던스: 매출액 +15~20% (원/달러 환율 1,400원), 3Q26에 미국 록빌 공장의 매출 기여(3Q는 1천억원 예상). 이익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음. 상반기까지의 분위기로는 매출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 높았으나, 최근 원화 강세 기조로 불투명. 3Q에 노조 파업 매출 손실 (회사 추정치 1,500억원)도 반영될 예정이라 실적 프리뷰 예의 주시 할 것. 7/20일에 인수 공시된 PolyPeptide Group으로부터의 매출은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기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사실상 '데드라인'이 제시됨. 조정위원회는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늦어도 9월 20~22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 한편 노조가 사후조정 과정에서의 회의록을 특정 문구만 발췌하여 무단 유포한 사건을 두고 회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함.
- 한편 오랜만에 작지만 주주 계약 공시가 있었음. 유럽 제약사(미공개)와 \$261.8M 규모의 신규 CMO 계약 체결('33년까지). 8/28일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과 함께 연내 6공장 착공 가능성을 시사하여, 추가 계약 및 본격적인 착공 소식을 기대.

삼성에피소홀딩스 (TP 620,000원): (변동 없음)

- '26년 가이던스: 바이오에피스 기준 매출액 +10% 이상, OPM 20% 이상 유지.
- 3Q26F 매출 4,893억원(YoY+20.4%), 영업이익 1,083억원(YoY-16.1%, OPM22.1%) 전망. 3Q에는 Biogen 향으로 SB2(레미케이드BS)의 유럽 판권 연장에 따른 마일스톤 7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2026년 연 매출액 YoY+11.9%, OPM21.7%로 가이던스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
- 8월 MSCI 리밸런싱에서 유통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편출 결정되었고, 리밸런싱일은 8/31일이므로 효과는 9/1일부터 반영.
- 키트루다BS 국내 출시를 위해 허가신청 및 MSD 상대로 동결건조제형 특허(특허등록번호 KR10-2031020, 존속기간 2032년3월29일)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 특허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 국내 키트루다 물질특허는 2028년 6월 만료 예정임. 이에 대비하여 제형, 제조방법, 투여방법, 용도/용법특허 등에 대해 대응할 것이고, 그에 따라 MSD측에서 침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있음(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는 일반적임).

알테오젠 (TP 450,000원): Novartis와의 빅딜로도 주가는 어렵지만, 3Q sales milestone 확인 후 분위기 전환될 것

- 9/2일 Novartis향으로 선금금 및 마일스톤을 포함한 \$3,233B(약4조4,165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계약 구조는 약 10~11개 품목에 대해 품목당 약 \$294M~322M 규모, \$20M 옵션 행사금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Novartis의 주요 블록버스터 제품의 투여 방법을 고려했을 때 10~11개 품목 대부분 임상 중인 파이프라인인 것이고, 유력한 후보였던 AOC인 Del-desiran 임상3상이 실패하면서 주가 크게 하락.
- 그러나 3Q26 실적 발표부터 동사에 대한 투자자 시각이 변할 것으로 전망. 1H26 Qlex 매출액 \$590에 대해 sales milestone \$25M를 수령하게 됨(매출 인식은 2Q26). 2Q는 \$0.5B 기준으로 마일스톤을 수령하였고, 3Q와 4Q까지 분기 마다 매출 \$1B~2B, \$3B~4B를 기록하며 sales milestone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음. 3Q는 특히 기술이전으로 인한 선금금까지 인식할 것이므로, 최근 기대감 만으로 주가를 지탱하긴 어려운 분위기 하에 실적이 돋보이는 종목이 될 것

한미약품 (TP 660,000원, 상향): 올해 하반기 국산 비만 치료제 승인과 판매 이벤트도 남았다

- '26년 가이던스는 두 건의 대형 기술이전으로 더 이상 주가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됨. 남은 올해 내 국산 비만 치료제인 에페글레타이드가 식약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하는 이벤트가 남아 있음. 한편, 10/29일 MSD 3Q26 실적 발표 또는 11/5일 AASLD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MASH 치료제인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개발 지속에 대한 우려는 실현되더라도 약재 해소가 될 것. HM17321의 Roche향(실 계약 주체는 Genenotech) 기술이전까지 성공하면서, 비만 치료제+두 건의 L/O가 이끄는 '27년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
-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되고 있음. 북경한미에서 매출채권이 올해 초 200억원대에서 2분기 1000억원 수준까지 치솟으며 문제가 되는데, 한미그룹 측은 10월 말~11월 초에 현지 점검을 진행하고 상황과 관련해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한편,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이 한양정밀 신동국 부자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추가됨. 이러한 분위기 하에 실질적인 지분 다툼 대상인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 중.

SK바이오팜 (TP 160,000원, 상향): Opakalim에 대한 FDA 지적, 퍼스트바이오로부터 기술도입 계약 등

- '26년 가이던스: 엑스코프리 US 550mn~580mn\$(YoY+29%, 환율 1395원/달러), 기타매출 1,100억원(YoY+44%). 신약 후보물질 5개 이상 추가됨에 따라 R&D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이던스 상 연간 예상 판관비가 5,700억원으로 증가(R&D만 전년 대비 550억원 증가). 환율 노출도가 높아 하반기 실적을 예의주시 할 것.
- 9/10일 Biohaven으로부터 인수한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인 Opakalim(BHV-7000)에 대해 FDA가 부분 임상 보류를 통보함. 도입 계약을 체결한지 2주 만의 상황. HSR Act 심사 중으로 계약 종결 전이라 선금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그보다 FDA의 우려를 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 Biohaven은 11월경이면 해당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함. 연말 탑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RISE3 임상은 문제 없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시에 긍정적인 탑라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11~12월경 주가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9/17일 한국 바이오텍인 퍼스트바이오로부터 파킨슨병 신약 후보 물질(임상 진입 전)에 대해 최대 4,308억원 규모의 기술 도입 계약 체결. C-Abl/LRR2 이중 저해제로 선금금 25억원 지불. 후보 물질 도출 및 전임상 단계까지는 퍼스트바이오가 진행 하고, 임상 단계부터 SK바이오팜이 진행할 예정. 후보물질 확정부터 해야 하는 단계로써 SK바이오팜의 R&D 비용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리가캠바이오 (TP 220,000원): (변동 없음)

- CStone에 기술이전된 ROR1 ADC인 CS5001이 1L DLBCL에서 완전관해 100% 달성. 최저 용량에서도 완전관해를 달성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장기적인 위험 대비 이점을 평가하고 최적의 용량과 투약주기를 확정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도 실시적으로 중단할 것.
- 하반기 서브라이선스 가능성 높음. TROP2 ADC (LCB84)의 임상1/2상 업데이트 및 그에 따른 옵션 행사 이벤트도 중요. MSD는 PD-1×VEGF + TROP2 병용 임상을 계획하고 있어, TROP2 ADC의 병용 전략이 향후 주목받을 전망.
- 하반기에는 1) HER2 ADC (LCB14)의 중국3상 최종 결과 확인 및 글로벌 임상1b의 Enhertu 내성 유방암 환자를 포함한 중간 결과 발표, 2) ROR1 ADC (LCB71)의 임상1b 추가 코호트 중간 결과 발표(임상은 중단해도 CR100%이므로 데이터 발표할 것으로 예상), 3) CD19 ADC (LCB73) 임상1a 중간 결과 발표할 예정.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변동 없음)

- Pfizer와는 이중 작용제(GLP-1/GIP)인 MET-8750는 계속 개발 중.
- 하반기는 MASH 치료제 DD01의 기술이전 가능성(DD와 Term Sheet을 논의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4Q26~1Q27로 추정, Efimosfermin의 L/O 규모 약 3조원임을 참고), 2) NLY02 (퇴행성 신경질환 타겟, RPK2 선택적 저해) 기술이전이 기대할 이벤트.
- 한편, 한미약품이 Genentech에 기술이전한 HM17321과 같은 UCN2 유사체를 동사도 개발 중. 오는 11월 Obesity Week에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경구제는 아님)

지아이이노베이션 (Not Rated): (변동 없음)

- GI-101/101a 키트루다 병용 2상 진행 중으로, 요로상피암에 대해 FDA 패스트트랙 지정됨. 단독 1상은 종료 후 ASCO에서 데이터 발표함.
- GI-102: ①SC 단독 투여 1b상(한국/미국), ②GI-102+키트루다 투약 2a상(한국/미국), ③GI-102+엔허투 투약 2a상(미국) 진행 중. ①번 임상은 연내 데이터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종료 시점과 학회 발표 등은 아직 미정
-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GI-301의 임상2상(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 대상, 12주간 약물군 및 위약군으로 투약하고, 한국/유럽/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 진행 계획)도 손조롭게 환자 모집 중이고, 기술이전도 꾸준히 시도 중.

인투셀 (Not Rated): (변동 없음)

- 바이오에피스가 Nectin-4 타겟 항체에 Nxt3를 적용한 ADC(SBE303)에 대한 물질 권리 확보를 위해 본계약(후속 계약)을 체결함. 계약 규모나 구조는 비공개이나, 지금까지의 관계가 단순한 공동개발 형태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함. 바이오에피스는 고형암 환자 149명에 대해 글로벌 임상1상을 진행 중(NCT07524348). '23년 12월 계약 당시 다섯 개 표적에 대한 연구를 염두하였으나, 나머지 4개에 대한 후속 개발도 기대. 다만 human data를 확인한 후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27년에 추가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자체 개발 중인 신약 TC-6146RO에 대한 국내와 미국에 임상1상도 진행 중.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다. 주목할 가치가 높음. 회사는 새로 꾸려진 BD팀을 통해 Bio-Europe, Bio-China, Bio-USA 등 상반기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꾸준히 기술이전을 시도할 것.

셀비온 (Not Rated): (변동 없음)

- 7/30일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의 첫 환자 투약이 이루어짐. mCRPC 환자 30명 대상 pre-Taxane 대상 임상하여 2L 진입 노릴 것.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플루빅토 단독 투여 대비 mOS를 추가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Lu-Pocuvotide는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조건부승인은 예상 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GIFT track으로 국내 승인을 획득한 세포치료제 기업 사례가 신청 후 1년4개월이었는데, 동사는 물질이라 승인까지의 난이도가 낮은 걸을 고려하면 연내 조건부승인을 기대할 수 있음 ('25년12월 신청 → 타 기업 사례로 보면 '27년4월이나 그 보다 빠른 것)

인벤티지랩 (Not Rated): (변동 없음)

- 베링거인겔하임에 전달받은 후보물질에 대한 두 번째 제형도 개발하여 전달하였고, 기대하는 타임라인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3분기에 본계약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음. 그 외 유럽 소재 파트너사와 제조 생산 시설 구축 투자금을 포함하여 위탁생산계약을 논의 중(2가지 품목, 수백억원/연 규모 예상). 유럽 현지 site로의 Scale-out도 함께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안정적인 Cash 창출은 물론, CDMO 기술과 Scale 확장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고농도 항체 SC 기술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짐. 고농도 항체 SC 기술은 '25년 10월 Halozyne이 Elektrofi를 인수하고, 이후 Vertex와 L/O 체결하며 알려짐.

에스티팜 (TP 190,000원): (변동 없음)

- '26년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지만, 매출 4Q>2Q>3Q>1Q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4Q까지 실적 성장은 분명할 것. 3Q에 OPM이 다시 17% 대로 회복되며 주가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
- Arrowhead의 Plozasiran의 sHTG 3상 데이터가 고객사인 Inoisy의 Olezarsen 대비 우수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음. Olezarsen향 수주는 '27년까지 납기일이고 이 때 Plozasiran은 매출 발생하지 않음('28년 매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그 사이 수천억대의 상업화 올리고 수주가 따라줄지 여부가 중요해짐.
- 한편, 9/8일 동사 주최로 RNA 국제 심포지엄인 RISC를 개최. Alynham 창립 CEO, Avidity의 CSO가 주요 연자로 참석할 예정. 동사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주요 연사가 속한 기업들은 주요 고객사일 것으로 추정됨.

올릭스 (Not Rated): 9/15일부터 약 160만주 전환청구물량 상장했으나 견조한 주가, 4분기를 바라볼 것

- 1) 탈모 치료제(OLX72021)의 호주 1b상에서 마지막 환자 투여 및 관찰을 종료. 환자 수와 국가를 확장(NZ 추가)한 2a상 IND 신청하였고, 연내 첫 투여할 것. 올해 4분기 경 2a상 진행과 함께 1b 데이터의 공개도 기대함. 2) 양측성 지도 모양 위축(GA)을 동반한 노인성 황반변성(AMD) 환자를 대상으로 한 OLX10212의 2a상 IND 신청(총 4개 국가: 호주, 뉴질랜드, 미국, 한국). OLX10212은 Thea에 L/O된 후 반환되었던 파이프라인으로, 습식AMD를 배제한 GA동반 AMD에 연구를 집중하면서 L/O를 시도할 계획.
- 그 외 Lilly와 MASH/비만 치료제 개발 계약에 따른 추가 성과 (Lilly의 옵션행사), 유베르나의 시장 출시 계획 등도 4Q까지 이어서 기대할 이벤트. 지방세포를 직접 타겟하는 OLX501A의 비만 원숭이 데이터는 6/22일에 공개된 것으로 고려하면 기술이전 시기는 이르더라도 1H27로 전망. '25년8월에 발행한 CPS가 전환청구되어 9/15일 1,662,789주가 상장되었으나 견조한 주가를 보이는 중으로, 4Q 이벤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음을 보여줌.

알지노믹스 (Not Rated): (변동 없음)

- 8/24일 회사 공지를 통해 Lilly Gateway Labs 입주를 밝힘. 입주 후 200개 이상의 타겟 질환에 대한 유전자뱅크를 기반으로 RNA 치환효소 플랫폼 기반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
- 오는 9/8일 R&D day를 개최하고,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소통할 계획. ESMO를 포함하여 하반기 주요 학회 일정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 가능할 것으로 기대.

주: 펩트론, 지투지바이오는 직전 리포트 발간 후 1년이 도과하여 관심종목에서 제외함

도표 19.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3Q26-4Q26 이벤트(2026.09.17 종가 기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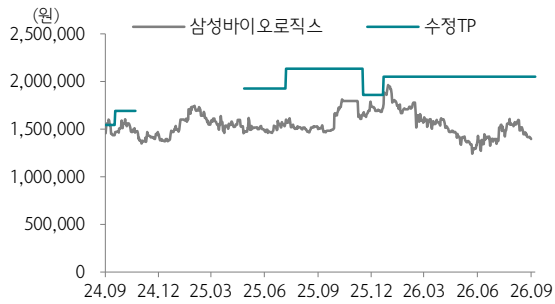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3Q26	4Q26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50,000	1,396,000	46.8%	• CAPEX 확대, 수주, 노사 분쟁 종료	•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초 (가이던스 상향) • 6공장 착공	• -
삼성에프스홀딩스	620,000	332,500	86.5%	• -	•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 자회사 확대, 학회 발표 등 주목 • SBE303 발표 1H27 전망
알테오젠	450,000	254,000	77.2%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주	• 3Q26 실적발표 11월 초	• 코스닥 잔류 및 무상증자 결정 (7/16) • J-code 발표로 인한 처방 수 및 WAC 상승 확인 됨(4월부터 MoM 상승 중)
한미약품	660,000	515,000	28.2%	•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허가 • HSR Act 행정절차 완료 (HM17321 L/O 선급금 매출 인식 시점 관련)	•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초 • 에피노페그듀타이드(MASH) P2b Top line 발표 • ESMO 관련	• 에피노페그듀타이드 관련 10/29 MSD 3Q26 실발, 또는 11/5 AASLD 유력 (F4 임상 포함 발표할 것으로 예상) • 에페글레나타이드 본격적인 판매는 27년부터 기대
SK바이오팜	160,000	79,200	102.0%	• -	• 3Q26 실적발표 11월 초 • Opakalim 3상 탐라인 발표 • Opakalim의 FDA 문제 해소 • 12월 AES(예상)	• 2 nd Product 도입 완료: Opakalim • Opakalim 임상2개 중 RISE2는 부분 임상 중단, RISE3는 정상 진행 중
리가캠바이오	220,000	83,200	164.4%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주 (송강제) • J&J의 2상 진입 소식	• 파트너사 서브라이선스 • 10월 ESMO 발표 • 12월 ASH, SABCS 발표	•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 임상 단계 상승 예정 파트너(마일스톤 수령): Ono(LCB97, 수령), SOTIO, IKSUDA
에스티팜	190,000	91,900	106.7%	• 수주 기대 (혈액암 추정)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주	• -	• -
디앤디파마텍	NR	46,050	-	• NLY-01 L/O 기대	• DD01(MASH) L/O 기대 (11월 말~12월) • 11월 Obesity Week	• Pfizer와의 용역계약은 계약금액 \$1.2M→\$1.7M로 증액하고, 계약기간 '26.11→'28.02로 연장
지아이이노베이션	NR	9,080	-	• -	• ESMO 관련 • GI-102 SC제형(단독) P1b 결과 발표	• GI-102: SC제형(단독) P1b, 키트루다 병용 P1/2,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단독은 1H26, 그 외 '26년 내 데이터 확인 예상) •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올릭스	NR	114,200	-	• 9/15 CPS 전환 물량 상장	• Lilly의 P2 진입 확인 및 옵션 행사 • OX104C(탈모) 1b상 결과 • 유베르나(탈모예방화장품) 시장 출시	• -
알지노믹스	NR	27,550	-	• 9/8 R&D day 개최	• ESMO 관련	• ESMO 채택 시 교묘세포종 데이터 공개할 것으로 예상
인투셀	NR	16,940	-	• -	• -	• 자체 개발 신약 중간 결과 발표는 1H27로 예상 • SBE303 본계약 체결 (7/22) • 학회 발표 보다는 파트너십 행사를 통한 L/O 논의(Bio-USA/ Europe/ China 등)에 집중할 것
셀비온	NR	13,470	-	• 국내 조건부허가 승인(GIFT)	• -	•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1H27 이후 예상)
인벤티지랩	NR	26,050	-	• BI의 제형에 대한 피드백 기대 • V사의 동물용 장기지속형 CDMO 계약 체결 기대	• -	• 고용량 SC 제형에 관한 관심 높아짐

주: 펩트론, 지투지바이오는 직전 리포트 발간 후 1년이 도과하여 관심종목에서 제외함

자료: 각 사,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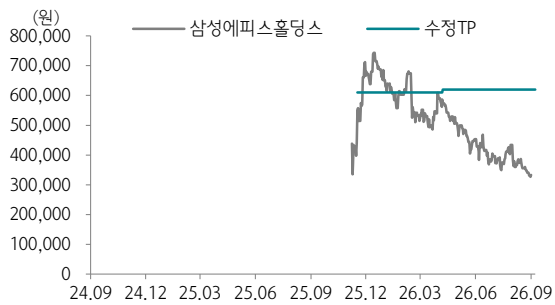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7	BUY	2,050,000		
25.12.3	BUY	1,860,000	-8.44%	-3.76%
25.7.24	BUY	2,134,029	-24.69%	-15.03%
25.5.13	BUY	1,927,985	-21.56%	-16.03%
25.4.16	담당자 변경		-	-
24.10.4	BUY	1,692,506	-10.08%	3.04%
24.7.25	BUY	1,545,331	-7.83%	3.52%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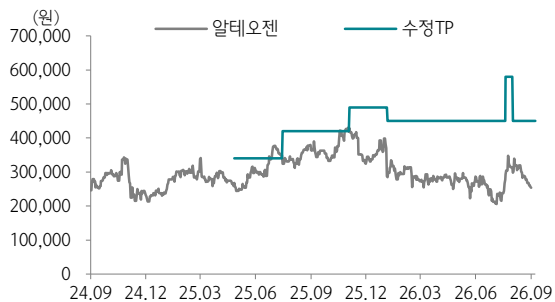
삼성에피소홀딩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27	BUY	620,000		
26.4.24	Neutral	620,000	-27.14%	-8.39%
26.2.9	Neutral	610,000	-8.06%	11.64%
25.12.3	BUY	610,000	5.08%	21.8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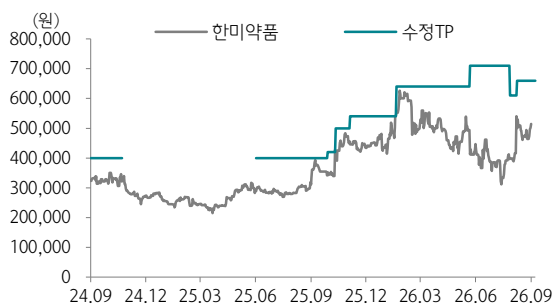
알테오젠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8.18	BUY	450,000		
26.8.6	BUY	580,000	-44.55%	-40.00%
26.1.22	BUY	450,000	-39.03%	-25.62%
25.11.20	BUY	490,000	-25.67%	-14.89%
25.8.1	BUY	420,000	-13.90%	2.41%
25.5.13	BUY	340,000	-9.96%	10.89%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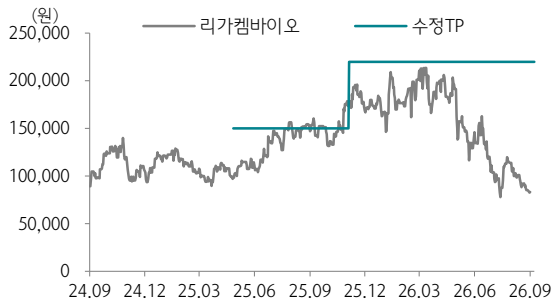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8.25	BUY	660,000		
26.8.13	BUY	610,000	-30.78%	-11.48%
26.6.8	BUY	710,000	-44.37%	-35.00%
26.2.6	BUY	640,000	-20.20%	-2.19%
25.11.21	BUY	540,000	-15.90%	0.19%
25.10.28	BUY	500,000	-10.58%	-3.40%
25.10.15	BUY	420,000	-15.30%	1.90%
25.6.18	BUY	400,000	-24.18%	-1.75%
25.6.9	Not Rated	-	-	-
25.4.16	담당자 변경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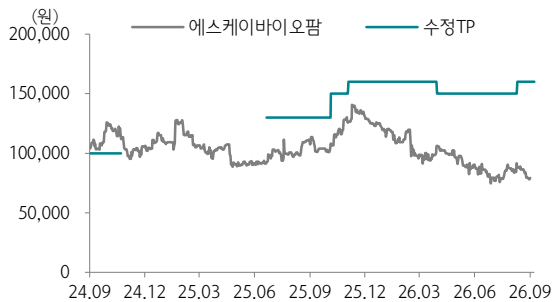
리가캠바이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220,000		
25.5.13	BUY	150,000	-8.77%	19.00%
23.11.16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과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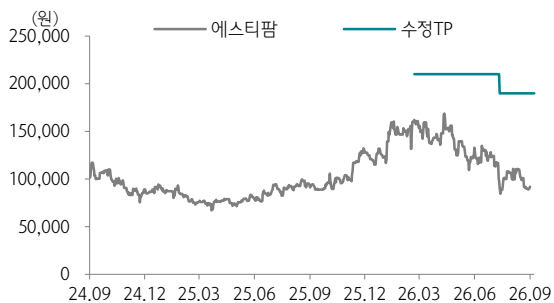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6.8.27	BUY	160,000		
26.4.16	BUY	150,000	-40.65%	-29.67%
25.11.20	BUY	160,000	-27.89%	-12.06%
25.10.22	BUY	150,000	-20.38%	-13.13%
25.7.7	BUY	130,000	-21.21%	-12.69%
25.4.16	담당자 변경	-	-	-
23.11.10	BUY	100,000	-2.17%	27.9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과리율

에스티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29	BUY	190,000		
26.3.9	BUY	210,000	-35.21%	-19.67%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8%	1.82%	0.00%	100%

*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